10139516

재중 한인 문학의 국가성과 민족성*

이 제 우**

목 차

Ⅰ. 서언
Ⅱ. 재중 한인 사회의 형성과 발전
Ⅲ. 재중 한인 사회의 이중 정체성
Ⅳ. 재중 한인 문학의식의 이중 구조 — 국가성과 민족성-
Ⅴ. 결어

Ⅰ. 서언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定住하는 한국인은 약 500만 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약 200만 명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중국 전체 인구의 0.18%에 지나지 않으나, 그 절대 수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 중국에서는 이들 한국인을 공식적으로 '朝鮮族'이란 고유명사로 호칭하고 있으나, 중국의 조선족은 그 국적과 민족이 다른 이중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漢族의 국가라 할만큼 한족은 명실상부한 중국의 지배적 다수민족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한족과 더불어 55종족의 '少數民族'과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국가임

---

* 본 논문은 1999년 10월 28일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원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임.

** 본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외교통상부의 1999년 6월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1999년 1월 현재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는 미국이 2,057,546명으로 가장 많고, 둘째가 2,043,578명의 중국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韓國籍을 유지하고 있는 居留者까지를 포함한 수치로 여겨진다.

에 주목해야 한다.[2] 소수민족이란 다수민족에 대한 대칭어로 특정한 국가를 구성하는 전체 국민 가운데 정치,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다수의 주력 민족과는 달리 인종과 언어·문화·종교·관습 등에서 고유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소수의 여타 민족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기조는 모든 소수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소수민족의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은 여러 소수민족 중 11번째로 큰 소수민족으로 130여 년의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핍박과 日帝의 압박을 피해 間島로 넘어갔던 조선족은 한족의 괄시와 일제의 탄압 등 갖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吉林省·黑龍江省·遼寧省 등 이른바 東北 3省에 터전을 닦았다. 2백만 조선족은 거의 황무지였던 이 지역을 개간하고 벼농사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끈질긴 항일운동으로 민족의 얼을 이어왔다.

중국의 '조선소수민족문학', 즉 중국 안에서 형성된 韓人文學은 중국 국적의 국민의식과 한국 민족의 고유정서를 융합한 '複合變異文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의 한인 작가들이 흔히 일컫는 '우리 나라', '우리 겨레'는 중국과 韓民族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나는 인위적 후천적인 의무관념이요 하나는 자연적 선천적인 고유감정이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의 한인문학은 사회주의체제와 함께 성장하여 사회주의적 이념과 사고에다 한민족적 생활방식과 정서로 복합된 창작물인 것이다.[3]

이 글에서는 중국을 조국시하면서 한국을 동족시하는 재중 한인문학의 모순적 이중구조가 재중 한인 작가의 문학적 욕구 분출의 중요한 수단 내지는 특징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국가관념과 민족의식의 형성배경과 전개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재중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

한민족의 중국에의 이주 역사는 130여 년을 넘기고 있다. 조선족의 생활기반은 중국 정주 타소수민족에 비하여 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들의 이민생활은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였

2)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의 웹사이트(http://www.koreaemb.org.cn/e01.html) 「중국개황」에 의하면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총 9,120만 명으로 중국 전 인구(12억 3,947만 명)의 8.0%를 차지하고, 그중 조선족은 192만 명으로 소수민족의 2.6%를 차지한다고 한다. 경향신문 1997년 8월 14일자의 「조선족 고려인 · 가장 우수한 소수민족」에 "14억 중국 인구는 93%의 한족과 7%를 차지하는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여 새로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자료의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다.

3) 許世旭, 「在中 韓人文學에 나타난 韓民族意識」, 『許世旭의 中國文學論』(서울. 法文社, 1999), 360쪽 참고.

으며, 그들 사회는 소수민족으로서 아직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1982년 「전국인구보편조사통계」에 의하면 조선족의 인구는 1백 76만 3천8백여 명으로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 중 11번째이다. 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길림성이 1백 10만 3천4백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중 75만 4천5백여 명이 재중 한인들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延邊朝鮮族自治州에 모여 살고 있다. 다음으로 흑룡강성이 43만 1천1백여 명, 요녕성이 19만 8천3백여 명, 내몽골자치구가 1만 7천5백여 명이고, 그 나머지는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한국인이 이곳에 거주하게 된 것은 조선조 말의 경제적인 빈곤에 의한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이곳에 건너가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이주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그들의 압제를 피하여 국경을 넘어갔거나 일제가 간도(지금의 연변지역)를 지배하고 무순 탄광의 경영을 맡으면서 의도적으로 다수의 한국인을 강제 이주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서는 조선족의 이러한 이주의 역사를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의거하여 살펴본다.[4]

1. 불법 이주기(1861년~1881년)

조선인 연변지역 거주자는 중국의 明代(1368~1644)에 생활난으로 여진족 부락에 이주한 사람 또는 여진족에 피랍 되어온 조선인이었으나 그 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인의 연변지역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860년대로, 그 당시 이 지역은 淸(1616~1911)의 관할지역이었다. 청의 조정에서는 1677년에 백두산,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1천여 리 되는 지역을 자신들의 선조의 발상지라 하여 신성시하였다. 청조는 성역화된 연변지역에 이주하여 토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짓거나, 인삼을 캐고 진주를 채집하거나, 벌목하고 사냥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封禁令을 실시하였다. 당시 쇄국정책을 실시하고 있던 조선도 자국민이 중국에 이주하여 농경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조선과 청 양국은 봉금령을 어기고 渡江한 자들을 斷刑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18세기 중엽부터 지주와 토호들간의 토지 倂呑에 의하여 파산한 조선 농민들이 봉금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이주하여 경작활동을 하고 있었다. 봉금령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고향에서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조선의 빈농들은 중국 동북의 비옥한 땅을 찾아 계속 이주해 왔다. 불법 越境한 농민들은 체포되어 농노가 되거나 고용노동자가 되었다.

4) 여기에서의 분기와 시기별 주요 사건은 孫章權 · 金應烈 · 朴吉聲, 『中國朝鮮族의 社會發展과 韓 · 中 關係의 位相』 (서울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95), 22~35쪽을 참고하였음.

봉금령은 약 200년간 실시되었으나 조선인은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연변지역에 이주하여 영농생활을 하였다. 당시 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지만 고향에서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 계속적으로 중국에 이주하여 온 결과, 龍井에 조선인 집단거주지가 형성되고 마침내 생활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청의 봉금령이 철폐되는 1881년 당시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 농민의 수는 1만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2. 봉금령 철폐 이후의 이주기(1881년~1910년)

청의 조정은 말기에 들어 국가 재정의 악화와 변방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만주침략 방지를 목적으로 이주민에게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는 이민실변정책의 실시를 위하여 봉금령을 폐지하였다. 청정의 이러한 조치가 조선의 빈농들을 중국 연변지역으로 급속히 이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조선측에서도 축출 요인을 제공하고 있었으니, 당시 조선의 관리와 지주들의 횡포와 높은 소작료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점차 어려워진 점이 이들을 동북지역으로 진출케 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족 전용 개간구역의 설정은 조선인의 중국이주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1894년에 65,000명, 1904년에 78,000명, 그리고 1908년에는 323,808명으로 조선 농민의 이주자가 급증하였다. 이 시기의 이주는 초기와 같은 불법 이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타민족과의 관계라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조선족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3. 한일합방 이후의 이주기(1910년~1945년)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정책인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산미증식계획」(1920)은 조선의 농촌을 파탄의 길로 이끌었고, 그 결과 많은 조선인들을 중국이나 일본으로 축출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 조선총독부는 1931년부터 우리 농민들을 만주에 이주시킬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격화되는 소작 쟁의에 대한 대책, 대 소련 국경방위대책, 만주의 개척 촉진이라고 하는 세가지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1934년 10월 한국인의 일본으로의 도선을 금지하고 그 대신 만주로의 이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후 우리 민족은 '이민개척단'이란 미명하에 집단으로 강제 이주되었는데, 1936년부터 1941년까지 5년 동안에 강제 이주된 농민만도 18만 명에 달하였다.

파산한 농민과 강제 이주된 농민의 경우 외에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또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배되어 중국으로 망명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들 또한 연변 조선족의 구성원이 되어 독립운동가로서 교육활동이나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조선인의 해외 이주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881년 연변의 조선족 인구는 1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1910년에는 10만 9천 5백 명, 1931년에는 약 4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1944년 일제 말기 중국 전역에는 약 1백 65만 8천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해방 이후의 조선족

1910년 이전에 동북 3성에 이주한 동포보다는 한일합방 이후에 이주한 동포의 수가 훨씬 많았다. 1910년 이후에 이주한 동포들의 경우,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정책과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이주한 한국인들은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해방된 모국에 귀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 외의 많은 조선족들은 귀환하지 않고 동북 3성에 오늘날까지 남아 정착하고 있다. 이들이 모국에 귀환하지 않고 중국에 잔류하게 된 이유는 이주 동기에 따라 그 배경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조선족이 모국의 해방을 맞이하였을 때에는 이미 중국에서의 생활기반이 조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도 형성되어 있었다. 중국 동북지역에 이주한 이들은 대부분 빈농들로 거의가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해방된 모국이라 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도 생계에 대한 보장이 없었던 것이 중국 잔류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중국에 한인 사회가 형성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모국을 떠나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여 정착함에 기인한다. 이민 소수민족사회의 형성은 新入者의 계속적인 충원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초기의 경제적 원인으로는 자연 재해와 조선의 사회적 문제가 비교적 컸으나 결정적인 것은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이었다. 이 두 정책에 의하여 토지를 수탈 당하고 생계의 길이 막힌 농민들이 중국·러시아·일본으로 이주하였던 것이다.

1945년 이후 중국 정부는 조선족이 중국과 협력하여 항일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점, 이주의 부단한 역사 등을 고려하여 이 지역을 조선족자치주로 결정함으로써 동북지역의 조선족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1990년 중국 인구조사통계에 의하면 중국 정주 한인의 수는 1,918,220명으로 집계되고 있

는데, 이들은 초기 조선인 이주자의 후손들로 연변지역의 주요한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연변지역을 개척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당사자들이다. 1982년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족은 연변자치주 전체 인구 중 40.32%에 해당하는 754,567명이고, 한족이 5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외에도 滿族·回族·몽골족 등의 소수민족이 있으나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심지이고 자치주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延吉市는 조선족이 전체 인구의 57%에 해당하는 100,27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圖們市의 경우도 전체 인구의 59% 정도가 조선족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요 市나 縣에도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초기 조선인의 이주 중심지였던 龍井의 경우도 인구의 74.1%를 조선족이 점유하고 있다.

연변지역의 주요한 개척민은 조선족을 비롯하여 한족과 만족이 있으나, 청조 초부터 조선족의 활약이 가장 컸으므로 연변 개척의 공로자는 역시 조선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족이 처음 이주할 당시에는 동북 3성의 거의 대부분이 황무지였고 이곳을 개간한 이들이 바로 두만강을 건어 들어간 조선 농민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100여 년간에 걸쳐 부단히 황무지를 개간하였음은 물론 벼농사의 성공 등, 정치·경제·사회·문화방면에서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변 사회에 공헌하였다.

일제가 중국의 동북 3성을 침략할 때 조선인은 중국과 협력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제가 패망한 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권력 투쟁에 있어서도 조선족은 공산당과 함께 국민당을 축출하는 데 커다란 힘을 발휘하였고, 한족과 함께 이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정착 및 중화인민공화국 건설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간도지역에서 조선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또 자치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1952년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민족자치구역실시요강」이 공포되었고, 1952년 9월 3일 연길시에서 '연변조선민족자치구창립대회'가 거행되어 정식으로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창립되었다. 1954년 중국은 신헌법을 제정하였고 이 헌법에 의거하여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자치주로 개칭키로 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1955년 4월에 자치구보다 격이 낮은 자치주로 정식 출범하였다.[5]

끝으로 1984년도 제3차 전국인구조사에 의한 동북 3성 내 5천 명 이상의 조선족이 분포된 지역의 출신지별 남북 출신의 인구를 비교하면 경상도·충청도·전라도의 남한 출신이

5)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반적인 지방국가정권의 직권을 행사하고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자치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州人民代表會議와 州人民政府의 자치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자는 자치주의 국가권력이고 후자는 집행기관이다

약 430,000명으로 1,325,000명 중 28% 정도를 차지하여 중국 조선족의 72% 이상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과의 지리적 인접성은 구한말 조선인의 역사적 시련과 더불어 중국에의 이주를 촉진 시켰다. 두만강을 넘어 지척의 황무지를 개간한 이민 첫 세대의 대부분은 북한 주민이었다. 그후 조선의 기근과 청조의 봉금령 해제,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강제 합병 등의 요인은 다시 만주지역 조선인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 시켰다. 1881년 만주지역의 1만여 명의 조선인이 1931년 63만여 명으로 폭증하였다. 북한 주민의 이주가 중심이 된 연변지역의 인구는 39만 6천 명으로 중국 조선족의 6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북한 주민의 이주와는 달리 1936년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위한 보조금과 유인책으로 일본은 鮮滿拓殖會社를 설립하고, 주로 남한의 경상도·전라도지역의 주민들을 만주의 북부지방인 흑룡강성과 연해주지방에 정착시켰던 것이다.

중국 조선족이 북한사회를 고향의 나라 내지 모국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리적 근접성, 역사적 연계성, 그리고 정치 사회적 이념성향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사회의 정치 사회적 이념과 체제구조의 유사성은 1950년 한국전쟁에의 중국 참전으로 피를 나누는 동맹국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1949년 中國籍으로 귀화한 조선족들은 중국인으로 한국전에 참여하고 연변지역은 한국전의 배후기지가 되어 대부분의 조선족은 북한을 지원하였던 것이다.[6]

중국 조선족의 북한지역에 대한 동질적인 정체감과는 달리, 한국 사회는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모국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 한중간의 국교단절 및 적대관계, 그리고 남북한의 양분화된 현실 등의 여건은 중국 조선족의 한국에 대한 모국으로의 정체의식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정책 이후 1980년대 비공식적인 한중간의 경제 교류가 시작되고, 1992년 8월 양국간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상호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조선족의 모국의식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7]

---

6) 한겨레신문사의 1995년 12월 14일자 『한겨레21』 제88호에서 흑룡강신문사 김충일 부주필(副總編)은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북한의 정책을 묻는 말에 "북조선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60년대에 조선족 수용정책을 취했다 특히 62~63년에 농촌 청년과 대학생들이 조선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북은 이들을 모두 받아줬다. 조선족들은 북조선의 그런 따뜻함을 잊지 않는다"라고 답한 바 있다.

7) 여기의 통계 수치와 분석 결과는 姜命相, 『中共의 少數民族政策』(서울. 隆盛出版社, 1988)과 趙政男, 『中國의 民族問題』(서울. 敎養社, 1988), 그리고 孫章權·金德烈·朴吉聲 앞의 책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였음.

Ⅲ. 재중 한인사회의 이중정체성

중국에서 구성민족들의 민족관계와 특히 한족 이외의 여타 민족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된 것은 鄧小平의 등장 이후로서 이른바 현대화 노선이 본격화되면서부터라 하겠다. 이것은 이들 소수민족의 거주지역, 이른바 민족지구가 중국의 현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민족상황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중심 민족인 한족이 중국 대륙의 中原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반면 기타 소수민족집단의 본거지는 대개 대륙의 변방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과 또 이들 소수민족집단은 수에 있어서는 한족에 비교가 안될 정도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면적은 중국 총면적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모든 자치구나 자치주가 소수민족만의 단일 주거지역은 아니다. 이들 지역은 어느 한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한족 또는 다른 민족 등과 雜居 내지 聚居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특정 민족의 풍습이나 언어·문화의 전통이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어 그들 민족 집단의 특수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특수 지역들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소수민족의 집중 주거지역인 변경의 안보적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욱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소수민족지구의 광활함과 그것에 대한 이용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문화방면의 정책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노선의 견지이다. 모든 민족정책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 문화·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회주의 민족 형성과 이의 공고화를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언제나 사회주의적 내용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스탈린의 정의인 이른바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이라는 사회주의 민족정책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강조되는 소수민족집단에 대한 각종의 민족문화정책과 민족문화 진흥 시책들은 외형적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별 민족의 독특한 문화영역의 존중과 그 보호 내지는 유지를 겨냥한 듯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명목적인 것이며 그 실제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인 통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정책이 이러한 뚜렷한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개별민족이 가진 다양한 문화전통의 독자적인 발전과 유지보다는 이것이 전 민족적으로 계승 통합되는 과정을 더욱 중히 여기고 이 과정에서 비교 우위의 논리로 자연스러운 문화적 통일을 기대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구상인 것으로 여겨진다.[8]

8) 趙政男. 앞의 책, 141~142쪽.

중국 사회의 인민으로서의 중국 조선족은 중국이 그들의 조국이며 국가이다. 중국 조선족들이 기여한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의 역사적 투쟁과 국가 건설의 공헌은 중국 소수민족의 위치가 아니라 주체적인 자신의 입장에서 생존을 위한 국가 건설의 결과로 중국의 영토 내에 조선족의 현실적인 국가의 의미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 조선족의 중화인민공화국에의 귀속의식은 신중국의 국가 형성 이후 형성된 관념이다. 중국 조선족의 국가의식 형성은 가난한 프롤레타리아 이민 생활과 민족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부 사회 건설과 혁명 투쟁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중국인 중심 사고의 쇠퇴와 소수민족정책에 의한 사회 통합 등의 요인이 조선족의 중국 국가관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의 자유 의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살고 싶은 나라는 중국이 56.2%로 가장 많고, 그 외 한국이 29.4%, 일본 3.2%, 북한 0.9%순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 대한 조선족의 국가인식은 매우 강력한 자부심으로 뿌리 내린 듯하다. 중국 조선족의 국가의식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강조되는 집단주의 국가의식이라 하겠다.[9]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의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현재의 중국 문화도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중국 조선족의 서방 사회에 대한 동경과 한국에의 유입 현상은 중국에서의 경제와 문화적인 삶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국가체제의 정치 사회적인 면은 신뢰할 수 있지만, 경제 문화적인 면은 조선족의 국가의식에 그렇게 깊게 뿌리내리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 그러므로 중국 조선족의 중국에 대한 국가의식은 사회주의 체제가 자부심을 갖는 사회적 평등을 강구하는 정치 및 사상적인 교화 및 세뇌와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 행위동원의 성격에서 규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는 경제적인 현실의 생활수준과 정신적인 문화수준의 충족감이 정치사회의식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족의 중국 국가에 대한 국가관은 중국인으로서의 조국 관념이지만 정치 사회적 이념적 성격이 강한 관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 문화적인 현실이 굳건한 토대로 뒷받침되지 못하여 고정화된 가치의식으로 판단되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지만 그들의 국가의식은 유동적인 것으로 중국인과 한국인의 관념 사이에서 규정되며, 정치적 이념 및 경제적 현실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비중 여하에 따라 국가관념은 변화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다민족국가 속에서의 한 소수민족의 위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국의 조선족은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 질서와 결코 동질적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중

9) 孫章權 · 金應烈 · 朴吉聲 앞의 책, 119~127쪽 참고

국 한족의 민족적 가치를 쫓아가면서 중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은 소수민족의 중국화를 한족의 중화사상을 토대로 장기적인 동화정책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이민족의 중국화 정책은 오랜 역사과정을 통하여 실현되어왔다. 중국에서 이주의 역사가 짧은 조선족도 한민족의 민족적 통합과정에 수렴되지 못하면 장기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중국의 문화 속에 동질화될 것이다.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족은 중국을 자신들의 국가로 생각하고, 한민족을 스스로의 민족으로 표현한다. 중국 조선족이 갖는 중국의 의미는 정치 이념적인 사회적 평등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인 생활습관의 전통은 중국의 관습보다는 한국에 정체감을 느끼며 조선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는 그들의 고향이며 역사의 뿌리이다. 북한사회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사회 심리적인 친근감을 갖고 있으며, 남한사회는 중국보다 경제가 발달한 상공업국가의 풍요한 사회로 인식된다. 중국 조선족의 생활과 인식에서 중국은 그들의 국가이고 북한은 그들의 과거 고향이었으며, 남한은 조선족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망의 모국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10]

Ⅳ 재중 한인문학의식의 이중구조

—— 국가성과 민족성

연세대 한준상 교수에 의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교포들은 한국이라는 모국과 모국의 문화에 대하여 심리적 이중성(ambivalence)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즉 한국에 와 있으면 한없이 기쁘지만 조금 지내다 보면 자신이 이주한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현지에 가 생활하다가 또 얼마간 지나면 다시 한국이 한없이 그리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한인동포들의 모국과 현지에 대한 이중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로 이러한 감정은 중국의 한인교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다시 한 교수에 의하면 모국에 대한 현실적 이중성과 이중적인 감정은 한국인 특유의 귀소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이중성과 감정은 그들 현지에서의 삶을 다소간 불편하게 만들게 되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민의 삶을 창조하게 된다는 것이다.[11]

---

10) 孫章權 · 金應烈 · 朴吉聲 앞의 책, 127~131쪽 참고

11) 한준상, 「재외국 한민족과 모국간의 문화적 연계」, 일본 오사까경제법과대학 아세아연구소 · 중국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편), 『제3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론문요지』(1990년 8월 2일~8월 5일), 349~350쪽 참고

특히 중국에 있어서의 한인 의식의 이중구조는 이민 초기 월경민족으로 출발하여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창립될 때까지의 안정적이지 못하였던 그들의 국적 관련 신분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12] 오늘날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지위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그 의식구조의 이중성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녕민족출판사 副編審(편집과 심사의 일을 맡음) 김재현에 의하면 월경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심리는 그 감정에서의 이중적 경향으로 정치적 관념에 있어서는 중국이 '조국'임을 인정하면서도 감정경향에 있어서는 한민족과의 혈연적 관계에 의하여 문학·예술·풍속·습관 등에 나타나는 심리 표현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13]

중국의 한인문학은 중국 소수민족 문학의 하나이므로 물론 중국문학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나, 문학의 역사적 발전 맥락에서 볼 때 그 연원과 발전 과정, 민족적 특질 등의 방면에서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한인문학은 중국이라는 특정적 환경 속에서 생성된 것이기는 하나, 한국문학의 풍부한 유산을 토대로 발전한 문학이기 때문에 한국문학과 깊은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또한 재중 한인문학으로 하여금 이중적 구조를 가지게 한다.

중국의 한인문학은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배태기로 항일의 격정과 조국 해방의 희망으로 민족적 색채가 강렬하던 1949년 이전 시기이다. 제2기는 공산 치하에서 중국 국민으로 편입된 뒤 자치의 긍지와 고향의 향수를 그린 성장기로 1949년에서 1966년까지이고, 제3기는 문화대혁명의 암흑기로 1966년에서 1976년까지이다. 197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4기는 새로운 내용과 자유로운 형식으로 새 활로를 모색하는 개방기이다.[14]

배태기의 작품에 한민족의 색채가 강렬한데 반하여 성장기의 작품에는 중국 정치의 색채, 곧 국공내전이 반영됨으로써 민족의식에서 국가관념으로의 전향 현상을 보였고, 개방기에 이르러서는 민족적인 바탕 위에다 국가적인 당위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문학성향이 선명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문학의 주제가 민족과 생존에서 국가와 정치로의 전향과 동시에 도

12) 송관덕, 「조선족의 '손님' 사상의 근원에 대한 분석」, 연변대학 <21세기로 달리는 중국조선족> 총서편찬위원회(편), 『중국조선족우열성연구』 (서울: 집문당, 1995), 206~216쪽 참고

13) 김재현, 「조선족 과경(跨境)심리 연구」, 中國 北京大學 朝鮮文化研究所·日本 大阪經濟法科大學 亞細亞研究所(編), 『第四次 朝鮮學 國際學術研討會 論文概要』(1992年 8月 20日~8月 22日), 204쪽 참고. 김재현은 이 글에서 감정경향에서의 이중성 외에 사회적응에서의 이중성을 들어 離鄕에 의한 고립감으로 망향의식과 소농경제사상에 따른 수동적 성격과 태도를 말하고, 또 자아의식의 이중성으로 곧 타민족에 비하여 앞선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한족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14) 許世旭, 「在中 韓人文學에 나타난 韓民族意識」, 앞의 책, 361쪽.

구화되었다는 말이다.[15]

19세기 말 특히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한 뒤, 적지 않은 조선의 애국 문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나라 잃은 민족의 비분의 감정을 토로하거나 초기 이주민들의 고난의 생활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썼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중국 한인문학은 당시의 한국문학과 구별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 동무야 아느냐 조선의 마음은/ 겨레의 피를 한 데 빚어서/ 곱고비 옥매인 원한의 가슴에/ 新의 꽃을 피우게 하려니/ 남의 빛같이 아무리 고와도/ 온 누리 사람이 죄다 따라도/ 님의 마음은 변할 길 없으니/ 설움을 걷고 안위를 간직해/ 조선의 미를 길이 맛보라(백악산인, 「朝鮮心」, 1928)

이 시에서는 조선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고국과 겨레 앞에 바치려는 백의민족의 굳은 의지와 순결한 지조를 표현하였다.

> 용주사 저녁종이 비암산에 울릴 때/ 사나이 굳은 마음 깊이 새겨두었네/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윤해영, 「선구자」, 1932)

이 「선구자」(조두남 작곡)는 일명 「용정의 노래」로 1930년대 초기에 창작된 후 널리 보급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창되고 있다. 이 노래는 그 시적 정서가 비장하고 겨레의 넋이 짙게 배어 있어 민족의 간절한 염원과 정서가 강렬하게 표출되었다.

이처럼 민족적 색채가 강하였던 재중 한인문학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분수령으로 그것은 점점 한반도로부터 멀어지고 중국 대륙의 부용적인 지위로 탈바꿈하였다. 즉 민족적인 주체성 외로 국민적 의무와 정치적 참여 등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신중국 건국 후 연변 한인작가 최초의 장편소설로 알려진 김학철의 장편소설 『해란강아 말하라』(1954)는 연변 연길현(지금의 용정시) 해란구 버드나무골을 주요 무대로 삼고, 9·18 사변 전후 1931년에서 1932년까지의 파란만장한 항일투쟁사를 폭넓은 서사적 화폭으로 그려낸 것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서의 인민대중의 각성과정과 항일무장투쟁 중의 우여곡절, 그리고 승리의 필연적 추세를 사실주의적으로 일반화하였다.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를 이은 신중국 건국 후의 두번째 장편소설 이근전의 『범바위』(1962) 또한 중국 제3차

15) 許世旭, 「中國 안의 韓人文學과 그 地位」, 洪承稷(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8), 189~206쪽.

국공내전 시기에 한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한족과 단합하여 국민당과 악덕 지주, 그리고 민족 분열을 책동하는 민족주의자들과 용감하게 싸워 이긴 피의 역사를 형상적으로 기록한 작품이다. 이 두 소설은 모두 재중 한인사회의 역사적 정치참여의 한 표현이었으니, 민족의 형식이나 겨레의 고유성은 인정하면서도 새 시대의 정치 의식과 새로운 국민적 역사 의식을 결합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중국의 탄생으로 인한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 번영에 대한 찬송과 충성은 시문학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 가슴헤쳐 흐르는 / 양자강의 높은 물소리에/ 장백림해 춤추어 화답하고/ 옥야만리에 황금파도 넘실대거니/ 이것은 그대의 약동하는 맥박이 아니오이까!
> (중략)
> 누가 만일 나더러 묻는다면/ —무엇이 가장 귀중하냐고?/ 그러면 아들은 서슴없이 말하리라/ 조국!/ 그대 말고 나는 모른다고!/ 그리고 그네를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바쳐 싸우련다고/ 오, 조국이여 길이 빛나라!(송정환, 「조국」, 1962)

> 연변이라 내 고향길 걷기가 좋아/ 꽃이라 범나비 수놓은 들판/ 길섶에 맞아주는 반가운 동지/ 천추에 정기뿜는 하얀 열사비
> 피바다로 젖어든 조국의 땅/ 걸어온 길 백리 가는 길 천리에/ 손짓하며 바래주는 다정한 동지/ 마음속에 우뚝 솟은 하얀 열사비(김창석, 「열사비」, 1962)

> 보라! 칠색무지개는/ 저 언덕밑 샘터에/ 뿌리를 박지 않았는가!/ 경수야 오너라/ 너는 네 고향 네 집을 떠나/ 어데를 가려느냐?/ 정든 고향마을은/ 기술혁신자를 찾는다/ 저 눈 모자라는 논판과 과수원에서…
> (중략)
> 아! 경수야/ 어서 이상의 은빛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와서/ 아름다운 청춘을 부르는/ 향촌의 가슴팍—/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라(이욱,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오라!」, 1963)

여기서의 고향이나 조국은 어느덧 과거 자신들이 떠나온 한반도가 아닌 현재의 연변지역이나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시대와 변화된 사회에의 적응과 행복한 미래에 대한 소망의 구가였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의 암흑기는 분명 재중 한인문학의 공백 상태였던 바, 한인 작가는 수정주의나 지방적 민족주의의 명분으로 수난을 당하였고, 결국은 추방을 당하거나 강제 노

역에 끌려나갔다.

개방기에 들어와서는 성장기 때 보여주었던 주제의 다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지만 정치적 봉사로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재중 한인시가 어떻게 국가와 민족을 수용하며 어떻게 이념과 겨레를 조화시키고 있느냐는 문제이다.

> 백 사람 백 소리해도 좋다/ 장군묘 장군묘 고구려의 무덤——여기에 묻혀 흙이 된 사람/ 다름아닌 우리의 조상인 것을(송정환, 「장군묘」)

> 내가 그린 이 흰 비둘기/ 정말로 날 수만 있어/ 조선의 한라산까지 날아앨 수만 있다면/ 아/ 비둘기를 다시 그리지 않을/ 그날 그날이여!(신현철, 「눈 내리는 두만강가에서」)

> 유구 만년 백의겨레/ 깨끗한 흰옷에/ 티끌 하나 묻을세라 말끔히 씻어 준/ 너 두만강 빨래돌아!/ 오늘도 양안의 여인들을 불러 왔구나(전춘식, 「두만강 빨래돌」)

이상의 시들은 연변의 역사 지리적 영원성과 두만강을 격한 조국애를 절절하게 그린 것인데, 여기에는 결코 국가적 정치적 복선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다음의 시들에는 민족의 동질성과 민족의 근원의식이 결연히 강조되었다.

> 가령 내가/ 이 세상 막끝 이름 없는 계곡에서/ 한 오라기 연기로 사라진다 하더래도/ 나는 정녕 잊지를 않으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조선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을(김학송, 「나는 조선민족이다」)

> 흰 두루마기——민족이 물려준 조상의 기상은/ 그 높은 절개와 참 뜻을 세상에 빛 뿌리며/ 오늘도 저 하늘을 자유로이 흐르지 않느냐/ 하늘도 부러워 아껴 입는 옷이 아닌가?(선우철, 「흰 두루마기」)

이렇듯 조선 민족임을 구가하면서 높은 긍지와 신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시에서는 모순적인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바, 여기서의 그리운 고향은 한반도가 아닌 연변이요, 그 속에서 강조된 애국은 중국애인 것이다.

> 여기는 동방!/ 태양이 솟아/ 해빛아래 온갖 꽃 피는 조국——/ 빨간꽃은 충성이요/ 파란꽃은 행복이요(이욱, 「조국송가」, 1978)

조국이란/ 내 잠들었을 때에도/ 후둑후둑 뛰는 내 심방가까이에 앉아/ 맥박을 세여보는 보모입니다/
(중략)
그 누가 선심을 써서/ 나에게 선사한 이름이 아니오이다/ 나를 키워준 정든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땀 흘려 새겨안은 이름이길래
울어도 그로 하여 울고/ 웃어도 그로 하여 웃습니다/ 모든 슬픔 걷어안고 기쁨을 주는 나의 보모/ 세상에 그처럼 고생많은이 또 어데 있으리까(김성휘, 「조국 나의 영원한 보모」, 1981)

여기서 불려지는 고향이나 조국은 분명 연변지역이나 중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꽃이 지는 시절/ 보리 고개 못 넘기며/ 산너머 부잣집에 끌려 간 누나" (김태갑, 「장다리꽃」)나 "묻지 마오 그 옛날/ 건너 마을 처녀 하나/ 지주에게 팔려온 날 밤/ 이 나무에 목매였다오" (김태갑, 「동구밖 느티나무」) 같은 지주에게 받은 착취나 탄압을 폭로 저주하거나 "아침녘, 땅나무터 출근종 울리기전/ 사립문 너머로 아기들을 받아 안는/ 탁아소 할머니 넓은 가슴은/ 푸른 하는 저 한끝까지/ 발돋움 해보라는 디딤돌" (허홍식, 「행복」)처럼 탁아소 할머니를 찬미하는 등 많은 대목들은 이미 연변의 한인시인들이 사회주의 문학대열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문학경향은 개방기에 창작된 일련의 서사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중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장 김성휘의 서사시 「장백산아 이야기하라」(1979)는 1930년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로 한중 두 민족이 항일유격대를 조직한 투쟁사를 기록한 7천 행의 장편이다. 이야기는 두만강 연안의 유수구란 마을에서 시작되는데, 거기엔 빈민 출신의 용감한 유격대원 靑松과 지주에게 능욕을 당한 뒤 투신 자살한 여인의 딸 수란이 주인공으로, 그리고 포악한 지주 송씨, 유격대의 사령관 양정우 등이 조역으로 등장한다. 송씨의 횡포를 보다 못한 청송이 장백산으로 입산하여 유격대원이 되고, 유수구 자위대에 잡혀 단두대에 오른 수란을 구출해 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며, 마침내 일본의 정예부대를 장백산에 유인 섬멸한다는 민족 청년의 영웅담이다. 이는 곧 한인과 중국인이 공동의 적을 함께 싸워 이겨내었다는 투쟁의 역사요, 승리의 노래로서, 그들 공동의 적은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 지주, 그리고 국민당이었던 것이다.

소설에서는 정치성향의 주제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근전의 『고난의 연대』(1981)는 재중 한인 백여 년의 투쟁사를 그린 것으로 중국 한인소설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 소설은 박천수·오영길·최영세 등 세 농가의 三代에 걸친 변화를 통하여 만주로의 이주, 토지 개

간과 벼농사의 어려움과 만청의 봉건 통치, 일제의 무력 침략, 국민당의 반민족 행위 등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의 공동 투쟁의 역사를 그린 것이다.

1983년도 전국우수단편소설로 당선된 임원춘의 「몽당치마」는 전통적 한인 사회에 있어 비교적 심각하고 묵은 문제 중의 하나인 동서간 고부간의 갈등을 그렸다. 경제 여건과 생활 환경이 다른 세 동서, 즉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농촌 부녀자인 동불사댁과 살림이 조금 여유가 있어 남을 잘 깔보는 조양천댁, 그리고 李氏 가문의 맏며느리로 갓 시집온 '나'가 등장하여 세 동서 사이에서 벌어지는 협조와 시기 갈등 및 고부간의 관계 등을 보여줌으로써 한민족적 색채를 짙게 풍기고 있다.

이 두 작품에서 보이는 민족의 투쟁이나 겨레의 숨결은 단순히 한민족의 고유성을 앙양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민족과의 형제 관계를 강조하거나 독립된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의 결속이라는 정책의 표현이라 하겠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당과 국가의 정책에 부합하는 주제는 더욱 많은 것이다.

근래에 들어 소설의 주제와 소재는 더욱 다양해졌다.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 한중간 상호 왕래가 실현되면서 풍요롭게만 보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조선족 동포들의 막연한 선망과 동경은 새로운 사회문제소설을 양산하고 있다.

1995년 중국 흑룡강신문사 신춘문예 당선작인 연길 태생의 작가 허련순의 『바람꽃』은 한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이 소설의 소재가 되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조선족들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로서 새로운 '조국'에서 한몫 잡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 땅을 밟는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도착순간부터 산산이 깨어지고 만다.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유골을 안고 한국에 온 홍지하에게는 친구 최인규의 중상 소식이 기다린다. 회사측에서는 본인 과실이라 주장하면서 인규의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인규의 부인은 병원비를 대기 위하여 사장의 씨받이로 들어간다. 불법 체류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한 조선족에 대한 노동 착취, 여성 농락 등 한국 사회의 치부가 생생히 드러난다.

또 연변의 권위 있는 '천지문학상'을 수상한 연변 라디오방송국 문학부장 김옥희의 「환상의 늪」(1997)은 남편과 떨어져 사는 30대 여성의 고독을 그린 중편소설이다.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하여 일본이나 한국, 미국 등 외국으로 떠나 생과부가 된 연변의 30대 기혼여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실종에 대한 반성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작품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의 물질적 가치 질서, 투쟁적인 생존 경쟁이 야기하는 자본주의적 갈등, 그리고 사회 구조의 불평등 현상 등의 문제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낯설고 난해한 영역임과 동시에 비판하고 극복해야 할 새

로운 도전이라 하겠다.[16]

V. 결어

이제까지 중국 한인 사회 형성과 발전의 역사, 중국 한인 문단의 소수민족정책과 관련한 배경과 변화, 그리고 그 결과로 생성된 재중 한인문학의 모순적 이중구조로 중국에 대한 국가관념과 한국을 향한 민족의식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바로 문학의 형식은 민족형식을 용납하고 문단의 조직은 민족집단을 허용하되, 문학의 내용은 무산계급 대중화·생산화로 통일하겠다는 사회주의 정략에 따른 것이다. 바로 문학의 내용이 계급의식으로 일치될 때 민족으로 인한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의도인 것이다. 여기서 민족문화와 무산계급문화는 결합되고, 핏줄은 조선족이되 나라는 중국인 것이며 문학의 형식은 한글이되 그 내용은 사회주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민족의 특성이 유지되면서도 사회주의 문학노선이 의무화된 결과라 하겠다.

한중 수교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문제소설도 어떤 의미에서는 반자본주의적인 색채를 띤 체제비판소설로 볼 수 있겠으나, 한국사회의 물질적 가치 질서, 투쟁적인 생존 경쟁이 야기하는 자본주의적 갈등, 그리고 사회구조의 불평등 현상 등의 문제는 재중 한인 문단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비판하고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 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기로부터 중국 한인 문단 자체 내에서는 많은 자기 비판이 나왔다. 그것을 종합하면 대체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의 정치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의 한인문학은 불건전한 성장을 지속해 옴으로써 일종의 정책문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과 외국의 한인동포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중국 한인작가들의 불완전한 지식구조, 제한된 생활공간, 그리고 편협한 시야를 지적할 수 있다.[17]

그러나 중국의 한인문단은 이제 과도기에 놓여 있다. 바로 생활방식이나 경제체제가 향촌의 농경사회에서 도시의 산업사회로, 사회의식이나 정치체제가 극좌의 폐쇄에서 통합의 개방으로, 민족의식이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광활한 세계주의로 전환하는 과도기인 것이다.

---

16) 여기서의 작품과 작품의 해설은 許世旭, 「中國 안의 韓人文學과 그 地位」, 洪承稷(편) 앞의 책과 조성일·권철 외, 『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서울 이회문화사, 1997) 및 許世旭, 「在中 韓人文學에 나타난 韓民族意識」, 앞의 책의 해당 부분에서 재인 또는 참고하였음

17) 남영전, 「세계조선민족문학속의 중국조선족문학의 위치 및 문제점」, 中國 北京大學 朝鮮文化研究所·日本 大阪經濟法科大學 亞細亞研究所(編) 앞의 책, 48쪽 참고

참 고 문 헌

任范松 · 權哲(編). 朝鮮族文學研究(朝鮮文). 延邊.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89.

蘇在英 외.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조성일 · 권철 외. 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 서울: 이회문화사, 1997.

葉志剛 · 智川. 中國少數民族作家文學.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9.

姜命相. 中共의 少數民族政策. 서울: 隆盛出版社, 1988.

趙政男. 中國의 民族問題. 서울: 敎養社, 1988.

孫章權 · 金應烈 · 朴吉聲. 中國朝鮮族의 社會發展과 韓 · 中 關係의 位相. 서울: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95.

일본 오사까경제법과대학 아세아연구소 · 중국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편. 제3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론문요지(1990년 8월 2일~8월 5일).

中國 北京大學 朝鮮文化研究所 · 日本 大阪經濟法科大學 亞細亞研究所 編. 第四次 朝鮮學 國際學術研討會 論文概要(1992年 8月 20日~8月 22日).

연변대학 <21세기로 달리는 중국조선족> 총서편찬위원회 편. 중국조선족우열성연구. 서울: 집문당, 1995.

許世旭. 中國 안의 韓人文學과 그 地位. 洪承稷 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8.

許世旭. 在中 韓人文學에 나타난 韓民族意識. 許世旭의 中國文學論. 서울: 法文社, 1999.